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예수는 누구인가? — 스트롱 번호를 사용한 KJV 성경 연구

예수는 누구인가 ·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한 여정

성경적 기초 교리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개회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칠백 년 전, 한 선지자가 이 아이가 무엇이라 불릴 것인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붙일 만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 연구를 읽기 위해 무언가를 믿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살펴보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살아 있는 사람 거의 모두가 예수라는 이름을 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읽고 스스로 헤아려 본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오늘 무엇을 믿든, 무엇을 배웠든,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원출처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기쁩니다. 모든 구절은 전문이 그대로 인쇄되어 있어서, 문장의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부분에서는 이 연구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 구절을 나란히 놓아 결론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이 연구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무엇도 어느 한 사람의 말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선지자가 기록한 것을 읽어 보십시오.

오프닝 앵커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태어났고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칠백 년 전에, 한 선지자가 이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라고 기록하였다. 아기 예수는 구유에 누워 계셨다. 그 구절을 천천히 읽으라. 그 구절들은 이 연구의 전체 메시지를 담고 있다.

A. "우리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 한 분 하나님, 그러나 말씀하시는 이는 한 분 이상

A1.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제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1장 26절과 창세기 1장 27절을 함께 읽으십시오. 두 구절 사이의 차이를 완화시키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26절은 "우리"와 "우리의"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자기 형상"과 "하나님이 창조하시되"라고 말하며, 둘 다 단수입니다. 성경은 두 구절을 나란히 두면서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둘 다를 진술할 뿐입니다.)

A2. 창세기 3:2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A3. 창세기 11: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내려가서 +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자.

A4. 이사야 6: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 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저의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6장 8절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 한 구절에는 같은 문장 안에 두 형태가 모두 나타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와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같은 화자가 단수 형태와 복수 형태를 함께 사용합니다. 이것은 기록상의 실수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자기 홀로 가리켜 복수형 단어를 사용하신 것도 아닙니다. 이와 같은 패턴은 성경의 여러 다른 책들에서, 여러 세기에 걸쳐 여러 번 나타납니다.)

A5.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원어 열쇠 / STRONG'S: H259 echad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개인적인 생각: 신명기 6:4이 이 연구 전체를 다룹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오직 한 분뿐입니다. 두 분도 아니고, 세 분도 아니고, 여러 분도 아닙니다. 이 연구에서 두 번째 하나님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 읽은 것이며, 신명기 6:4이 그것을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라는 단어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 단어는 에하드입니다. 이는 저녁과 아침이 하루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하나의" 날이라 불릴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며,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두 사람임에도 "한" 육체라 불릴 때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은 그 안에 한 사람 이상이 있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나"라는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26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자"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합니다.)

A6. 이사야 45:5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나는 여호와라 +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45:5은 이 진리의 또 다른 측면을 말해주며, 이 연구는 그것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글들이 앞으로 무엇을 발견하든 결코 두 번째 하나님을 더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발견하게 될 것은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기이하고 더 좋은 것, 곧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B. 여호와와 사자라 불리는 이 — 하나님이라고도 불리는 이

"천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말라크(H4397)이다.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를 의미한다.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사람의 본질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임무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아래 기사들에서 성경이 이 특정한 보냄받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주목하라.

B1. 광야의 하갈 —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다

창세기 16:7 여호와와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와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H4397 malak

여호와와 사자가 이르시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16: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그가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와 이름을 불러 가로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내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16장에서 독자를 멈추게 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여호와와 사자"라 불리는 이가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말한다. 그는 "여호와께서 네 씨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는 번성하게 하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므로 말씀하신다. 둘째, 하갈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 본문 자체가 이 여호와와 사자를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라고 부른다. 하갈은 바로 이 동일한 분을 "주여"라고 부른다. 창세기의 기록자는 하갈과 의견을 같이한다.)

B2. 이삭 위의 손 — 그가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시다

창세기 22:11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창세기 22:15 여호와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대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제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22장 11-18절에 나오는 두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은 "네 아들을 내게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말하는 이는 그 아들이 말하는 이 자신으로부터 아끼지 않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입니다. 고대에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였습니다. 메시지만 전달하는 피조된 사자는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피조된 사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으로 맹세를 서명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이는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B3. 야곱이 한 사람과 씨름하다 — 그 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부른다

창세기 32: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굴되었더라 (26)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있어 그와 씨름하다가 →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창세기 32:28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29)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30)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으니 →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도다.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32장 본문은 이 존재를 사람이라고 부른다.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말한다. 야곱은 그 땅을 "하나님의 얼굴"이라 이름한다. 야곱은 자신의 생명이 보전되었다고 말한다. 야곱은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묻는다. 야곱은 이름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되묻는 질문만 받는다. 이름에 대한 이 답 없는 질문을 기억하라. 같은 질문이 성경의 다른 책에서, 수백 년 후에 다시 나타난다.)

B4. 타는 떨기나무 — 스스로 있는 자이신 천사

출애굽기 3:2 여호와와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와 사자가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니라 →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 출애굽기 3장 2절은 여호와와 사자라고 말한다. 두 구절 뒤인 출애굽기 3장 4절은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말한다. 같은 떨기나무, 같은 불, 같은 음성이 둘 다에 나타난다. 성경은 이것을 결코 모순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 동일한 음성이 그 후에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니게 될 이름을 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타는 떨기나무와 성전 뜰에 계신 예수님

요한복음 8:56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7)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59)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 이에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그 차이가 가르치게 하십시오. 떨기나무에서는 불 속에서 나온 음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말합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얼굴을 가립니다. 성전에서는 한 사람이 무리 앞에 서서 내가 있느니라 말합니다. 무리는 돌을 집어 듭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습시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돌로 칠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느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음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B5. 마노아와 그의 아내 — 기묘자라 하는 이름

사사기 13:3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여호와와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사사기 13:17 마노아가 또 여호와와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이까 당신의 말씀이 이를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송하리이다 (18) 여호와와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6383 piliy

내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사사기 13:20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21) 여호와와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와 사자인줄 알고 (22)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 가운데로 올라가니 →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제 개인적인 생각: 사사기 13장에서 세 가지가 두드러집니다. 마노아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이 이름을 묻습니다. 이번에도 마노아에게 이름은 감추어지는데, 이번에는 그 이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로 주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필리(H6383)입니다. 흠정역(KJV)은 필리를 "비밀"로 옮깁니다. 필리는 알기에는 너무 기이하다는 뜻입니다. 필리는 이사야 9:6에서 우리에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이 붙여지는 곳에서 "기묘자"로 번역된 단어인 펠레(H6382)와 같은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와 사자는 이후 제단의 불꽃 속에서 올라갑니다. 마노아 자신의 결론은 "우리가 천사를 보았다"가 아닙니다. 마노아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다"입니다.)

B6. 여리고 성 밖의 군대 장관 — 경배하고 신을 벗다

여호수아 5:13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14)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와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 여호와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H8269 sar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고 →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다른 관점, 같은 장면 — 신을 벗으라는 명령을 받은 두 사람

출애굽기 3: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 거의 같은 표현으로 주어진 동일한 명령이 수백 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다른 두 사람에게 주어진 것을 주목하라. 떨기나무 앞에서 그 명령은 성경 본문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음성으로부터 온다. 여리고 밖에서 그 명령은 손에 칼을 든 채 서 있는 한 사람으로부터 온다.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 사람을 경배한다. 그 사람은 그 경배를 거절하지 않는다. 이것을 실제로 지어낸 천사가 어떤 사람이 그 천사를 경배하려 할 때 하는 행동과 비교해 보라. 천사는 "나는 너와 함께 된 종이라"(요한계시록 19:10)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라"(요한계시록 22:9)라고 말한다. 요한은 두 번 천사를 경배하려 했고, 두 번 다 천사는 이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여리고 밖에서 여호수아의 경배를 거절한 자는 아무도 없었다.)

B7. 이제 신약성경은 매우 분명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18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439 monogenes · ■ G1834 exegeomai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 독생하신 아들이 그를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5:37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는 그의 음성을 어느 때에도 듣지 못하였고 그의 형체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6:16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빛에 거하시고 →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니라.

이제 성경의 두 부분을 나란히 놓고 그 둘을 함께 읽어보라.

구약성경은 사람들이 이 인물을 보았고, 이 인물과 이야기하였고, 이 인물 앞에서 먹었고, 이 인물과 씨름하였으며, 그러고도 살았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신약성경은 분명하게, 그리고 세 번이나 되풀이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말한다.

두 진술 모두 참되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구약에서 본 그 사람과 사람들이 볼 수 없었던 아버지는 같은 인격이 아니다. 요한은 보이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힌다. 그는 보이신 그 사람이 독생하신 아들, 곧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아들이라고 말하며, 이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어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셨다고 말한다.

[여러 구절을 연결한 것 — 어느 한 구절도 단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음]

(제 개인적인 생각: 바로 이 지점에서 조심스럽고 정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곳이 사람이 성경에 무언가를 덧붙이기 시작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직접적으로 명시된 것은: 구약 본문 자체가 이 보내심을 받은 분을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이 보내심을 받은 분을 만난 사람들도 똑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결론이 아닙니다. 그 부분은 문장들이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구절들을 연결함으로써 도달하는 것은: 이 특정한 눈에 보이는 인물이 구체적으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단일 구절도 "창세기 16장의 여호와와 사자가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결론은 요한복음 1:18, 요한복음 5:37, 디모데전서 6:16을 구약의 기록들 옆에 놓고 누가 보이신 것인지 물음으로써 도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 태그가 거기 있는 이유이며, 그 태그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B8. 그리고 여호와이신 사자가 구약의 맨 마지막에 다시 나타나신다

말라기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H4397 malak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언약의 사자와

다른 관점, 같은 장면 — 약속된 사자와 확인된 사자

마가복음 1: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람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제 개인적인 생각: 말라기 3장 1절은 한 구절 안에 보냄을 받은 두 인물을 언급합니다. 한 보냄받은 자는 앞서 가서 길을 예비합니다. 다른 보냄받은 자는 "주"라 불리며 "언약의 사자"라 불립니다. 이 두 번째 보냄받은 자는 주 자신의 성전에 오시는 분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그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마가는 길을 예비하는 자를 광야에 있는 요한이라고 이를 짓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보냄받은 자는 그 시점에서 마가에 의해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채 남습니다. 구약은 주이신 사자를 기다리며 끝을 맺습니다. 신약은 바로 그 사자가 걸어 들어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C. 독자에게 지워진 나무 — 산 위의 아브라함과 이삭

C1. 창세기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3173 yachiyd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 그를 번제로 드리라.

C2. 창세기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원어 열쇠 / STRONG'S: ■ H6086 ets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22:6에서 아버지는 나무를 지지 않습니다. 이삭이 산으로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무 위에 이삭을 눕히려 합니다. 그 나무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는 에츠(H6086)입니다. 이것은 살아 있는 나무를 가리키는 일반적인 단어이며, 또한 베어낸 목재를 가리키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같은 단어가 생명나무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부르는 데도 사용됩니다.)

C3. 창세기 22: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C4. 창세기 22: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뿔이 수풀에 걸린 숫양 → 그의 아들 대신 번제로 그것을 드렸다.

창세기 22: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아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와 산에서 보이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22장 7절에서 아들의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보라.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그 질문에 답한다. 아브라함의 답은 그가 알았던 것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 아브라함은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고 말한다. 그 문구는 두 가지 의미를 담을 수 있다.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이 자신이 쓰실 어린양을 얻으실 것이라는 것이다. 다른 의미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 어린양으로 준비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날 하나님이 실제로 준비하신 것은 어린양이 아니라 숫양이었다. 숫양은 다 자란 수컷 양이다. 이 숫양은 뿔이 걸려서 아들 대신 죽었다. 이삭의 질문은 한 가지 의미에서는 그 산에서 답을 얻는다. 이삭의 질문은 또 다른 의미에서는 여전히 열려 있다. 어린양은 아직 찾아지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그 장소의 이름을 미래 시제의 약속으로 짓는다.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나무를 짊어진 아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신 아들

창세기 22: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 위에 나무를 지웠고 → 그 둘이 함께 갔더라.

요한복음 19:17 저희가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그가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라.

요한복음 19:18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 예수는 그 가운데 계셨다.

(제 개인적인 생각: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독자, 언덕, 아들 자신의 등에 지워진 나무, 그리고 그 나무를 지고 올라가는 아들. 이 장면은 성경에서 두 번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께서 칼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대신 숫양을 대체물로 두셨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아무도 죽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대체물이었습니다. 두 장면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에 주목하십시오. 이삭은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날 이삭의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그 답은 나중에 요단강에서 요한으로부터 왔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로 걸어오는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C5. 요한복음 1: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C6. 창세기 22: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439 monogenes

네 사랑하는 독자 → 그가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C7. 히브리서 11: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드렸으니 →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생각한지라.

(제 개인적인 생각: 히브리서 저자는 이삭을 가리켜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용한 것과 동일한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단어는 "독생자", 모노게네스(G3439)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산에 올라가는 길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산 아래에 있던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와 아이가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산을 걸어 내려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비유컨대" 다시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유란 그림이나 상징을 의미합니다. 명령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죽은 것이나 다름없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장소에 대한 note — 본문이 직접 주장하지 않는 보조 note

역대하 3:1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여러 구절을 연결한 것 — 어느 한 구절도 단독으로 이렇게 말하지 않음]

(제 개인적인 생각: 창세기 2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신 곳을 모리아 땅이라 부릅니다. 역대하 3장 1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을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 산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이삭이 거의 제물로 바쳐질 뻔했던 산과 이후 모든 성전 제사가 드려진 산은 같은 이름을 공유합니다. 예루살렘은 또한 병사들이 성벽 밖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도시이기도 합니다. 오직 성경 구절이 말하는 바만 진술하십시오. 이 구절들은 골고다가 모리아와 같은 바위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구절들은 같은 이름, 같은 산줄기, 같은 도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말은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미래 시제로 하였습니다.)

D. 고난받는 종 — 십자가가 있기도 전에 십자가를 묘사한 장

D1. 이사야 52:1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14)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우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15)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인생보다 상하였었으니 → 그가 열방을 놀라게 할 것이며.

D2. 이사야 53:1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와 팔이 뉘게 나타났느냐 (2)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 우리가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D3. 이사야 53:3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서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 그는 멸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D4. 이사야 53:4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 →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D5. 이사야 53:6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D6. 이사야 53:7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여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 →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D7. 이사야 53:8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끌어집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서 끌어집은 →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D8. 이사야 53:9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꾀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는 그 무덤을 악인과 함께 정하였으나 그 죽음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도다.

D9. 이사야 53:10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와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 그가 씨를 보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D10. 이사야 53:11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12)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며 +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니 →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중재하였느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53장 9절을 읽고, 그다음 이사야 53장 10절을 다시 순서대로 읽어 보십시오. 첫 번째 구절은 그 종이 죽어서 부자의 무덤에 묻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구절은 그 종의 영혼이 죄를 위한 제물이 된 후에, 그 종이 자기 씨를 보며 그의 날이 길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진술은 죽은 채로 있는 사람에게는 둘 다 참일 수 없습니다.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나기 칠백 년 전에 이미 이사야 이 장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선지자의 두루마리, 그리고 병거 안에서 그것을 소리 내어 읽는 사람

사도행전 8:32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33)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34)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35)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선지자가 이 말을 누구를 가리켜 함이나 →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전하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것은 그 답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이 소리 내어 던진 정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지자가 누구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그 답은 빌립의 사사로운 견해가 아닙니다. 빌립은 이사야 53장의 바로 그 구절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은 그 구절로부터 예수님을 전파했습니다. 사도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었는지가 우리를 위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들이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읽었는지 추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E. 임마누엘 —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

E1.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5959 almah · ■ H6005 Immanuwel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E2. 이사야 9: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원어 열쇠 / **STRONG'S**: ■ H6382 pele

한 아기가 태어나고 + 한 아들이 주어졌으니 →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불릴 것이며 → 그 정사의 더함이 무궁하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사야 9장 6절의 두 동사의 순서를 보라. 이 두 동사는 같은 동사가 아니다. 이 두 동사가 그 순서로 놓인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 아기가 태어났다(BORN). 한 아들을 주셨다(GIVEN). 태어났다는 것은 그 아이가 어떻게 세상에 왔는지를 설명한다. 주셨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던 한 아들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한다. 이제 이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들을 생각해 보라. 이사야 9장 6절은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사야 9장 6절은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불릴 것이다"라고 말한다. 목록의 첫 번째 이름인 기묘자는 펠레(H6382)이다. 펠레는 사사기 13장에서 마노아가 이름을 물었으나 얻을 수 없었을 때 받은 대답과 같은 어근을 공유한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 이름이 주어진다.)

E3. 이사야 9: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취도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도다.

E4. 미가 5: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개인적인 생각: 미가 5장 2절의 한 문장이 이 연구 전체의 양 끝을 담고 있다. 이 통치자는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 작은 마을에서 나온다는 것은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곳에서의 시작이다. 이 통치자의 나움은 상고에, 영원에 속한다. 영원으로부터의 나움은 전혀 시작이 아니다. 미가는 두 진리를 같은 문장 안에서 진술한다. 미가는 어느 쪽 진리도 약화시키지 않는다.)

F. 여자의 후손과 처녀 — 첫 약속과 그 성취

F1. 창세기 3: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너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 두리니 →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하나님께서는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 때, 동산에서 뱀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 전체에서 구원자에 대한 첫 번째 약속입니다. 이 구절이 누구의 씨를 지칭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통해, 가계는 남자를 통해 추적됩니다. 그 예가 아브라함의 씨와 다윗의 씨입니다. 여기, 단 한 번, 바로 태초에, 지칭된 후손은 여자의 씨입니다. 또한 이 구절에 나오는 두 개의 상처가 크기가 같지 않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여자의 씨의 발꿈치는 상하게 됩니다. 뱀의 머리는 상하게(부서지게) 됩니다.)

F2. 갈라디아서 4:4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5)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 하심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그다음에 그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다고 말합니다. 보내심이 문장에서 먼저 언급됩니다. 태어남은 문장에서 두 번째로 언급됩니다. 그 순서는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어떤 장소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 장소에서 보내질 수 없습니다.)

다른 관점, 같은 장면 — 약속된 표적과 이루어진 표적

이사야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꿇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내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르리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두 기록의 차이가 곧 가르침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그녀가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그들이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기록에서는 한 어머니가 자기 아기의 이름을 짓습니다. 마태의 기록에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마태는 또한 어떤 독자도 추측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본문 안에서 멈추어 독자를 위해 그 이름을 번역해 줍니다. 어느 시대의 어떤 독자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놓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마태는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단지 이사야의 예언을 마태에게 떠올리게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F3. 누가복음 1:31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제 개인적인 생각: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한 질문은 합리적인 질문이며, 사람들은 지금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대답은 논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한 선포입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언급된 보좌를 주목하십시오: "그 조상 다윗의 왕위." 그것은 이사야 9장 7절에서 그 아이가 앉을 것이라고 말한 것과 같은 보좌이며, 시편 110편이 기록된 대상인 그 왕가와 같습니다.)

G. 육신이 되신 말씀 — 그리고 사람이 실제로 그분을 찾는 방법

G1. 요한복음 1: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056 logos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나의 개인적인 생각: 요한복음 1장 1절은 한 절 안에 세 가지 진술을 제시한다. 세 가지 진술 모두가 필요하다. 첫 번째 진술은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이다. 말씀은 성자가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사용된 칭호로서, 시작점이 없었다. 두 번째 진술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이다. 말씀은 단순히 성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한 인격체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진술은 "말씀은 하나님이었다"이다. 말씀은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열등한 존재가 아니다. 세 진술 중 어느 하나라도 제거하면 요한이 기록한 문장과는 다른 문장이 된다.)

G2.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원어 열쇠 / **STRONG'S**: ■ G4637 skenoo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광야의 장막과 한 몸의 장막

출애굽기 25:8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지을지니 → 내가 그들 중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14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저의 개인적인 생각: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거하시매"라는 표현에 사용한 그리스어 단어는 스케노오(G4637)입니다. 스케노오는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가죽과 나무와 금으로 그것을 지었습니다(출애굽기 25장 8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같은 그림이 다시 나타나지만, 이번에는 그 장막이 사람의 몸입니다. 광야의 장막은 요한이 설명하는 진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켜 앞서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 장막을 그림자로,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으로 밝히는데, 이는 그 그림자가 가리키는 실체를 먼저 드러낸 후에야 그렇게 합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G3. 골로새서 1:15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17)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G4. 골로새서 2:9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10)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G5. 그분을 찾는 방법 — 그가 우리에게 어디를 찾을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5:39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40)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상고하라 → 이 성경이 곧 나를 증거하는 것이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39-40에서 당대에 살아 있던 사람들 중 거의 누구보다도 성경을 더 잘 알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성경을 외워서 암송할 수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이 외운 성경 전체가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데도, 여전히 생명을 얻기 위해 자신에게 오려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성경의 말씀을 아는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그 인격을 아는 것과 같지 않다. 생명을 찾을 다른 곳은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감정을 살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성경을 살피라고 말씀하셨다.)

G6. 누가복음 24:25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26)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G7. 누가복음 24:32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G8. 누가복음 24:44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라 →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

(제 개인적인 생각: 누가복음 24:44-45은 이 연구 전체가 묻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이 답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신 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세 부분,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을 언급하셨습니다. 이 세 부분이 합쳐져 구약 전체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구약 전체에 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일부에만 자신에 관한 내용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두 가지 별개의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사람은 성경 전체를 손에 들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을 열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 성경을 열어 달라고 구하십시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G9. 요한일서 1: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어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들은 바요 + 눈으로 본 바요 + 주목하고 +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영원한 생명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요한은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감각들을 일부러 나열합니다: 들은 것, 본 것, 자세히 살펴본 것,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것. 요한은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은 자신이 함께 식사했던 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문장에서 요한은 그 사람을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영원한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사도들이 손으로 만졌던 그 사람은 태초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1장 1-3절의 전체 주장입니다. 요한은 이 주장에 대해 이론가가 아니라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H. 왜 죽음이 그렇게 되어야 했는가 —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리

H1. 문제, 명백하게 진술됨

이사야 59:2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로마서 3: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H2. 왜 피인가, 더 쉬운 방법은 없었는가

히브리서 9:22 율법을 좇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859 aphesis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 17:1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 생명을 위하여 속하는 것은 피니라.

히브리서 10:4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이 세 구절을 함께 놓고 보면 고대 희생 제도 전체가 스스로 설명된다. 생명은 피 안에 있다. 죄는 생명을 대가로 요구한다. 고대에는 동물 희생이 속죄(죄에 대한 임시적인 덮개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는 것)를 수백 년 동안 날마다 제공

해 주었다. 히브리서는 동물 희생이 결코 죄를 없앨 수 없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렇다면 그 모든 희생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것들은 죄의 빛을 여전히 갚지 못한 채로 눈에 보이게 남겨 두었다. 그것들은 생명이 빛졌음을 길고 반복적으로, 날마다 일깨워 주는 것이었으며, 죄의 빛을 온전히 갚을 수 있는 그 하나의 죽음이 오기까지 그 일깨움을 붙들고 있었다.)

H3. 그가 얼마나 낮은 곳까지 오셨는가

빌립보서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본체시나 → 종의 형체를 가지사 →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빌립보서 2장 6-8절의 내려가는 순서를 주목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셨다. 예수님은 명성을 비우셨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셨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다.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바울은 그 문장이 굳이 필요로 하지 않았던 두 단어를 더 덧붙였다: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단순히 말하는 것으로는 바울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구체적인 방식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의 일부이다.)

H4. 그것이 실제로 그에게 치른 대가 — 미리 말씀하셨고, 이후에 다시 말씀하심

이사야 50: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욕을 뱉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 뱃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나를 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겼고 → 수치와 침 뱃음에서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노라.

시편 22:16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17)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18)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뽑나이다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 내 겹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마태복음 27:35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고 그 옷을 나눌새 제비를 뽑더라 → 이는 이루어져 함이라.

요한복음 19:34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창이 그의 옆구리를 찌르니 →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개인적인 생각: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찢린 손과 발에 대해 썼다.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군인들이 옷을 나누어 가지는 것에 대해 썼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그 누구도 십자가 처형을 본 적이 없었던 천 년 전에 이것을 썼다.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묘사하고 있던 것이 아니었다. 마태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일어난 후 수 세기 뒤에 썼다. 마태는 군인들이 시편 22편에서 묘사된 그대로 행했다고 기록한다. 마태는 군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그 이유를 밝힌다: "이는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 두 기록을 함께 읽어 보라. 다윗은 십자가 처형이 일어날 것을 알 방법이 전혀 없이 시간을 내다보며 자신의 기록을 썼다. 마태는 십자가 처형이 일어났다는 것을 부인할 방법이 전혀 없이 십자가 처형을 돌아보며 자신의 기록을 썼다.)

H5. 그 죽음의 목적 — 비극이 아니라 다리

로마서 5:8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9)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10)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644 katallasso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고린도후서 5:18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19)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20)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2643 katallage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으니 →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으니.

디모데전서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6)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 개인적인 생각: 중재자(서로 갈라선 두 당사자 사이에 서서 그 둘을 다시 화합시키는 자)는 반드시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온전히 속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재자로서 섬길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이 중재자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서 있는 자리에 설 수 없고 인간의 죽음을 죽을 수도 없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9절이 그 죽음 안에서 참되었던 것을 무엇이라 말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그리고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죽음은 그저 또 한 사람이 죽는 것에 지나지 않아, 누구에게도 구원(죄와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출)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학자들만을 위한 부차적인 질문이 아닌 이유입니다. 구원 교리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H6. 장대 위의 뱀 — 그분이 자신에게 적용하신 옛 그림

민수기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뱀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다른 시각, 같은 장면 — 광야의 장대와 언덕 위의 십자가

요한복음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민수기 21장과 요한복음 3장 사이의 이 연결은 이 연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이 연결을 직접,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고치라거나, 용감해지라거나, 치유를 얻어내라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드신 것을 바라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라본 자들은 살았습니다. 이제 이 두 장면을 함께 붙잡고 그 이상한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뱀뱀은 그것을 바라보던 사람들을 죽이고 있던 바로 그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 비슷하게 이상한 진리를 말하는데, 예수님께서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셨으나 우리를 위해 죄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고린도후서 5:21). 치료책은 저주와 동일한 모양으로 높이 들렸습니다.)

I.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을 "하나님"과 "주"라 부르십니다

I1. 히브리서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2)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3)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아들로써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 또한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I2. 히브리서 1:5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6) 또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원어 열쇠 / **STRONG'S**: ■ G4416 prototokos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하셨느냐 →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제 개인적인 생각: 히브리서 첫 장 전체는 하나의 긴 논증을 펼칩니다. 그 논증은 아들이 천사가 아니며 결코 천사였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여호와와 사자"라 불리는 인물에 대해 여러 페이지를 할애했던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 말라크(malak)는 심부름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친아들께서는 구약의 여러 때에 그 심부름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도 아들을 창조된 천사들 가운데 분류하도록 두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아들을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I3. 히브리서 1:8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9) 네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쁨을 네게 부어 네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10)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11)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12) 의복처럼 갈아 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아들에게는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무궁하도록 → 주여 태초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제 개인적인 생각: 히브리서 1장 8절의 처음 다섯 단어를 다시 읽어 보십시오: "아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있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하

나눔이여"라고 부르시고, 이어서 아들을 "주"라고 부르시며, 아들이 땅과 하늘을 지으셨다고 인정하십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성경에서 결코 하나님이라 불린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하나님이라 부르시는 이 구절을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시점, 같은 장면 — 왕을 위해 지어진 노래,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들에게 인용하심

시편 45: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히 계시며 →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02:2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26)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 같이 낡으리니 의복 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27)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년대는 무궁하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으며 → 주는 여전하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제 개인적인 생각: 이 부분은 두 본문을 나란히 읽는 것이 실제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시편 45편은 결혼 축하입니다. 시편 102편은 곤경에 처한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시편 102편에서 그 말씀은 세상을 지으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두 시편 모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은 두 시편을 모두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두 시편을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제시합니다. 히브리서 1장은 두 시편을 모두 아들에게 적용합니다. 원래의 시편과 히브리서 1장의 인용 사이에 있는 작은 표현 차이들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이러한 작은 차이들을 감추지 않으며, 이 연구 역시 그것들을 감추지 않습니다. 시편과 히브리서 1장 사이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이 가리키는 인물의 정체성입니다.)

J. 주께서 내 주에게 이르시되 — 논쟁을 끝낸 구절

J1. 시편 11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2)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홀을 내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 중에서 다스리소서

원어 열쇠 / **STRONG'S**: ■ H3068 Yehovah · ■ H113 adown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개인적인 생각: 시편 110편 1절의 이 한 구절은 처음 읽을 때 보이기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두 단어 모두 "Lord"로 표기됩니다.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표시는 대문자 사용입니다. 첫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LORD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영어 아래에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의 이름인 여호와(H3068)입니다. KJV에서 대문자는 항상 그 밑에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여호와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는 주인이나 통치자를 뜻하는 단어인 아돈(H113)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아돈의 형태는 "나의 주"로 읽힙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이 "나의 주"라고 부르는 어떤 이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제 이 단순한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주는 누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다윗 자신의 가문에서, 여러 세대 후에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음을 기억하면 그 답은 더욱 이해됩니다. 사람은 보통 자기 자신의 증손자를 "나의 주"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J2. 그분이 친히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 물으셨으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마태복음 22:41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42)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뉘 자손이나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44)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돌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45)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46)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 한 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더라.

(내 개인적인 생각: 예수님은 마태복음 22:41-46에서 자신이 하신 질문에 대한 답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 그분은 질문을 던지시고 그것을 답이 없는 채로 남겨 두셨다. 지금도 그것은 여전히 답이 없이 남아 있으며, 지금도 거기에 맞는 답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리스도는 육신을 따라서는 다윗의 자손이시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그분이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따라서는 다윗의 주가 되신다.)

J3. 베드로는 교회가 시작된 날 같은 구절을 사용하였다

사도행전 2: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34)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 하나님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내 개인적인 생각: 사도행전 2:29-36에서 베드로의 논증은 짧다. 베드로의 논증은 어떤 영리함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은 어떤 사람에 대해 기록했다.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려 올라간 적이 없다. 사람이 가서 다윗의 무덤을 볼 수 있다고, 베드로는 몇 절 앞에서 말한다. 그러므로 그 시편은 다윗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 다음 베드로는 그 시편이 가리키는 인물의 이름을 밝힌다. 베드로는 전혀 완화하지 않고 이 인물의 이름을 밝힌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베드로는 이 인물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J4. 같은 시편이 한 가지를 더 말하며 — 히브리서는 그 위에 온전한 논증을 세운다

시편 110:4 여호와와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여호와와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라 →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5:5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6)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을 스스로 영광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히브리서 7:3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으니 →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24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25)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나라.

(제 개인적인 생각: 짧은 시편 하나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이 자기 주라고 부르는 어떤 이를 언급하며,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시편 110편은 시온에서 다스리는 왕을 언급합니다.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분보다 더 오래된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을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결코 후회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율법이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서로 구별되게 지켰습니다. 그 율법 아래서는 한 사람이 두 직분을 동시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시편 110편은 한 인물에게 두 직분을 모두 부여합니다. 히브리서는 여러 장에 걸쳐 그 인물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K. 무덤에서 일어나심 — 그리고 당신 안에 사심

K1. 사실 그 자체와 그것이 전해진 방법

고린도전서 15: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고린도전서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K2. 부활이 그분에 대해 증명한 것

로마서 1:3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4)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제 개인적인 생각: 바울은 로마서 1:3-4에서 대답의 두 부분을 다시 한 문장에 순서대로 담아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주장이 입증되었습니다.)

K3. 구약이 먼저 말하였다

시편 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11)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시리이다.

사도행전 2: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 미

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다윗은 죽어 장사되었으되 → 그는 미리 보는 자로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K4. 그리고 이제 — 그는 그가 구원하신 백성 안에 사신다

로마서 8: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갈라디아서 2: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박혔나니 →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골로새서 1:27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원어 열쇠 / **STRONG'S**: ■ G3466 musterion

이 비밀 =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요한복음 14:2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 우리가 저에게 와서 함께 거하리라.

(개인적인 생각: 이 연구의 전체 흐름을 끝까지 따라가 보라.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음받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사람들은 살았다. 예수님은 작은 마을에서 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성 밖 나무 위, 언덕에서 죽임을 당하셨다.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셨다. 이제 성경은 예수님이 사람들 안에 사신다고 말한다. 이 결론이야말로 이 연구가 처음부터 향해 가던 곳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이 연구의 요점은, 이 모든 것이신 그분이 당신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도 주목하라: "우리가 오리라." 창세기 1장 26절에서 성경을 여신 복수형 음성이 여기서도 여전히 나타난다.)

L. 그는 다시 오신다 — 그리고 영원히 지속되는 선택

L1. 그가 오신다,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다

사도행전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요한계시록 1:7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 그를 찌른 자들도 보리라.

L2. 데살로니가후서 1:7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8)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9)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10) 그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원어 열쇠 / **STRONG'S**: ■ G1557 ekdikesis

화염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실 때에라

(제 개인적인 생각: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은 한 그룹이 아니라 두 그룹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는 것과 순종하는 것이 같은 구절 안에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장의 일부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도 주목해 보십시오. 한 그룹에게는 불이 되는 예수님의 동일한 재림이 다른 그룹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일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에서 어느 편에 서게 될지는 나중에 아니라 지금 결정됩니다.)

L3. 요한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2)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 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위에 앉으신 이는 충신과 진실이라 칭하더라 →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9:16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내 개인적인 생각: 요한계시록 19장 12절의 작은 한 구절에 주목하라.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나, 오직 그 분만이 그 이름을 아셨다. 이 연구에 주어진 이름들은 같은 본문에 나타난다. 그 이름들은 신실하고 진실한 자, 하나님의 말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L4. 책들이 펴지다

요한계시록 20:11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책들이 펴졌고 +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는 생명책이라 →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제 개인적인 생각: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나타납니다. 한 종류의 책은 사람들이 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다른 종류의 책은 이름을 기록하는데,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은 행위의 책들에 기록된 것으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결과를 결정한 단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여부였다고 말합니다.)

L5. 성경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한 것만큼 명백하게 말한 선택

요한복음 3:18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36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로마서 6:23 죄의 값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값은 사망이요 →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 로마서 6장 23절은 이 연구 전체의 중심 구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짧은 문장입니다. 죄에는 값아야 할 값이 있고, 그 값은 사망입니다. 그 값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치러집니다. 어떤 사람이 그 값을 영원토록 스스로 치르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미 치르신 것을 선물로 받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체 선택입니다. 아무도 그 선택을 피할 수 없는데, 선택하지 않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방식을 선택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의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0장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이 연구의 모든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결정을 향해 쌓여 왔습니다. 그 결정을 내릴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L6.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마무리

요한계시록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요한복음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제 개인적인 생각: 성경의 마지막 초대는 아무 값도 요구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는 "누구든지"입니다. 그 단어는 일부러 아무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 공부를 읽는 사람 중 가장 악한 사람도, 오랫동안 거절해 온 사람도 빼놓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오직 나아와 생명을 받는 것뿐입니다.)

연습 퀴즈

1. 창세기 1:26 —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 a) 우리의 형상을 따라
- b)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 c)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시고

2. 이사야 7:14 —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 a) 이름을 예수라 하라
- b)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 c)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노아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반드시 죽으리로다:

- a)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
- b)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임이니라
- c)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음이라

4. 시편 110:1 —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 a)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 b) 네 원수 중에서 다스리라
- c) 내가 네 원수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히브리서 1:8 — 아들에게는 이르시되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 a) 공의의 규는 주의 나라의 규이니이다
- b)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 c)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6. 창세기 22:8 —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하시리라:

- a) 그리고 그것을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 b)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 c) 보라 불과 나무를

7. 데살로니가후서 1:9 — 주의 얼굴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자는:

- a) 그리고 그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 b) 이는 둘째 사망이라
- c) 그리고 그의 위엄의 영광을 위하여

정답: 1-a, 2-b, 3-c, 4-c, 5-a, 6-b, 7-a

이 답변 뒤에 있는 증인들

이 답은 한 저자의 목소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사사기의 저자, 열왕기의 저자, 그리고 다윗이 모두 여기에 기여합니다. 이사야, 미가, 말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루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말합니다. 빌립은 사막 길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여덟 편지에 걸쳐 씁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를 마무리합니다. 이는 성경 스물여덟 권에 걸친 열다섯 목소리이며, 창세기의 첫 장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집니다. 열다섯 목소리 모두가 같은 사람에 대해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 연구가 어떻게 확장되는가

→ 그림자가 빛을 가리키는 방법: 이삭의 등에 놓인 나무(창세기 22:6)와 아들의 등에 놓인 십자가(요한복음 19:17). 그림자는 산에서 나타났다. 몸은 성 밖에서 나타났다.

단어가 왜 중요한가: 영어 단어 하나인 "주"(LORD)는 시편 110편 1절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단어를 나타낸다. 그 두 히브리어 단어는 여호와(H3068)와 아돈(H113)이다. 마태복음 22장 45절에서 예수님이 펼치신 논증 전체가 바로 그 차이에 근거한다.

→ 이것이 당신에게 적용되는 방식: 예수님은 오셨던 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실 분만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 살고자 하시는 분입니다(골로새서 1:27, 갈라디아서 2:20).

→ 이것이 영원을 위해 의미하는 것: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로마서 6:23). 그것들은 사람이 죄의 빛을 갚는 오직 두 가지 방법이다.

결결: 시편 110편 4절과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에 관한 전체 교리를 열어준다. 이 교리는 한 사람 안에 왕과 제사장이 결합되어 있으며, 율법보다 오래되었고, 하나님이 철회하지 않으실 맹세로 보증된 것임을 설명한다. 이 교리는 그 자체로 온전한 연구를 할 가치가 있다.

→ 결결: 창세기 1:26의 "우리"와 "우리의"를, 신명기 6:4의 "유일하신 여호와"와 함께 붙잡으면, 신성에 관한 전체 연구로 이어지는 문이 열립니다. 신성은 한 분 하나님이며, 성경 전체에 걸쳐 성부, 성자, 성령이 구별된 위격으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이 연구는 그 전체 연구의 가장자리만을 살짝 다루었을 뿐입니다.

→ 결결: 데살로니가후서 1장 7-10절과 요한계시록 19장 11-16절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온전한 교리로 이어집니다. 이 교리는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 예수님 재림의 갑작스러움,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라는 명령을 포함합니다. 분명히 진술하십시오: 성경은 예수님 재림의 확실성을 말씀하되, 예수님 재림의 일정은 알려주지 않습니다(마태복음 24장 36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 사역 또한 예수님 재림의 일정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결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은 약속된 후손이라는 전체 흐름을 열어준다. 이 흐름은 아브라함(창세기 22장 18절)을 거쳐 다윗(시편 132편 11절)을 지나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명확하게 이름이 밝혀진다.

→ 가능한 계시: 아담은 창세기 32장에서 씨를 하던 자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으나 거절당했다(창세기 32:29). 마노아는 여호와와 사자에게 그의 이름을 물었으나, 그 이름은 피리이(H6383)로서 알 수 없을 만큼 기이하다는 말을 들었다(사사기 13:18). 그런 다음 이사야는 우리에게 태어난 아기가 바로 그 같은 어근에서 나온 기묘자, 펠레(H6382)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한다(이사야 9:6). 구약에서 감추어졌던 그 이름이 한 아기 위에 선포된다. 성경의 끝에서, 하늘에서 나와 말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여전히 자기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요한계시록 19:12). 그 이름은 주어졌지만, 그 이름은 이 연구에서 다루어진 것보다 여전히 더 깊다.

공개 초대 — 당신이 누구든지, 계속 읽으십시오

이 연구를 읽기 위해 반드시 그리스도인일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것들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탐색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 마음에 품어온 질문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의 신앙에 대한 호기심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을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의 모든 것은 당신의 것이며, 무료이고, 당신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이름을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나라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무엇을 믿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의 연구로는 예수님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 연구는 여전히 성경을 통과하는 하나의 길만을 걸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존재하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어떤 한 페이지도 그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비에 관한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혜에 관한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식에 관한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내에 관한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건에 관한 연구들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연구들이 준비 중입니다. 이 연구들을 원하는 순서대로 읽으십시오. 진행하면서 우리의 출처를 확인해 보십시오. 이 연구들에 나오는 모든 구절은 의도적으로 전문이 실려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말을 그대로 믿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모든 구절을 직접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초대 다음에 또 하나의 초대가 이어집니다. 우리는 그 초대가 숨겨져 있는 척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초대는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연구입니다. 지금 읽고 싶으시면 지금 그 연구를 읽으십시오. 다른 것을 먼저 읽고 싶으시면 다른 것을 먼저 읽으십시오. 아무도 세고 있지 않습니다. 문은 어느 쪽이든 열려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닌 신들의 제단으로 가득한 도시에서 아래의 말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그 도시로 와 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 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 주를 찾게 하시며 만나게 하려 하심이라 +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히브리어 핵심어

“천사 / 사자” — **H4397 malak** — 보내진 자; 사자; 천사

이 단어는 성품이 아니라 임무를 가리킵니다. 이 단어는 사람들에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선지자들에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는 하늘의 존재들에게 사용됩니다. 이 단어 자체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 무엇인지를 결코 말해 주지 않습니다. 이 단어 자체는 오직 어떤 사람이 보내졌다는 것만을 말해 줍니다. 주변의 성경 본문이 나머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변의 성경 본문은 이러한 기록들에서 실제로 나머지를 말해 줍니다.

“하나님” — **H430 elohim** — 하나님; 신들; 참 하나님

엘로힘은 복수 형태이다. 엘로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가리켜 단수 동사와 함께 반복적으로 사용된다. 이 단어 자체가 이 연구가 살펴보고 있는 충만함을 담고 있다.

“여호와” — **H3068 Yehovah** — 대문자 LORD로 흠정역(KJV)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적 이름

구약에서 대문자로 LORD가 나타나는 곳마다, 여호와가 영어 단어 LORD 밑에 있는 히브리어 이름이다.

“주” — **H113 adown** — 주; 주인; 소유자; 다스리는 자

시편 110편 1절에서 아돈(adown)의 형태는 “내 주”로 되어 있다. 아돈은 그 구절에서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Yehovah)와는 다른 히브리어 단어이다.

“하나” — **H259 echad** — 하나; 연합된; 첫째

에하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라”에 나오는 단어이다. 에하드는 저녁과 아침이 하나의 날로 불리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에하드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한 몸이 되는 데 사용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외아들” — **H3173 yachiyd** — 유일한; 독생자; 홀로 있는 자; 사랑받는 자

창세기 22장은 이삭을 “내 독자”라고 세 번이나 부른다. 야키드(Yachiyd)는 오직 하나뿐인 자를 의미한다.

“나무” — **H6086 ets** — 나무; 목재; 재목; 판자; 막대기

에츠(Ets)는 살아 있는 나무와 잘린 목재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이다. 에츠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운 나무를 가리키는 단어이다.

“기묘자” — **H6382 pele** — 경이; 놀라운 일; 이해를 초월하는 것

펠레는 이사야 9장 6절에서 그 아기에게 주어진 첫 번째 이름이다.

“비밀 / 기묘한” — **H6383 piliy** — 기이함; 알 수 없을 만큼 기이함

Piliy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자신의 이름을 설명하기 위해 준 단어이다. Piliy는 이사야 9장 6절에 나오는 pele라는 이름과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처녀” — **H5959 almah** —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자; 처녀; 동정녀

“알마”는 이사야 7장 14절에 사용된 단어이다.

“임마누엘” — **H6005 Immanuwel**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은 그 자체로 온전한 문장인 이름이다. 마태는 독자를 위해 이 이름을 번역해 준다.

“대장 / 왕자” — **H8269 sar** — 우두머리 되는 사람; 족장; 대장; 방백; 통치자

사르(Sar)는 여리고 성 밖에서 칼을 뽑아 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장하는 칭호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 **H1961 hayah** — 있다; 존재하다; 되다

하야(Hayah)는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나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어근이다.

그리스어 핵심 단어

“말씀” — **G3056 logos** — 말; 말씀; 말해진 것; 생각의 표현

요한복음은 탄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 요한복음은 태초 이전부터 시작한다.

“거하다” — **G4637 skenoo** — 장막을 치다; 진을 치다; 장막에서 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 이 구절은 사람이 장막에 거하듯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 안에 거하신 것을 묘사한다.

“독생자” — **G3439 monogenes** — 독생하신; 유일무이한; 그 종류 중 유일한 것

독생자(monogenes)는 아들에 대해 사용된다. 독생자(monogenes)는 히브리서 11:17에서 이삭에 대해 사용된다.

“선포하다” — **G1834 exegeomai** — 인도하여 내다; 이끌어내다; 충분히 말하다; 알게 하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다.

“**화목**” — **G2644 katallasso** — 적대에서 우호로 바뀌는 것; 다시 은혜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
카탈라소는 십자가의 모든 이유를 한 단어로 말해 준다.

“**화해**” — **G2643 katallage** — 두 갈라진 편을 다시 화해시켜 하나로 만듦; 은혜를 회복시킴
카탈라게는 위의 카탈라쏘와 같은 어근에서 나온 것이다. 카탈라쏘는 화해의 행위(서로 갈라섰던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회복하는 것)를 가리키는 말이다. 카탈라게는 그 화해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면**” — **G859 aphesis** — 보내버림; 놓아줌; 풀어줌; 용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하여 보냄이 없느니라.

“**신비**” — **G3466 musterion** — 비밀; 한때 숨겨졌다가 이제 알려진 것
성경에서 신비는 결코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다. 성경에서 신비란 하나님이 알리시기로 작정하신 비밀이다.

“**복수**” — **G1557 ekdikesis** — 공의에서 나오는 것; 잘못을 온전히 바로잡음
Ekdikesis는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Ekdikesis는 억제되지 않은 분노를 의미하지 않는다. Ekdikesis는 완전히 시행되는 정의를 의미한다.

“**말아들**” — **G4416 prototokos** — 장자; 처음 낳은 자
아버지께서는 아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

SOURCES & CREDITS

Scripture: 「성경전서 개역한글판」 (Korean Revised Version, 1961), 대한성서공회 (Korean Bible Society) (Public Domain (copyright expired 2011-12-31; confirmed in writing by the Copyright Department, The Bible Society of Korea, 2026-08-06)) — a redistributable edition, looked up exactly and never machine-translated.

Alternate chapter/verse numbering reconciled with STEP Bible TVTMS (CC BY 4.0).

Strong's numbering & original-language data: OpenScriptures Hebrew Bible (CC BY 4.0); STEP Bible.org — TAHOT/TAGNT/TBESH/TBESG (CC BY 4.0); Robinson-Pierpont Byzantine Majority Text (Public Domain); Strong's dictionary, 1890 (Public Domain).

Typography: Google Noto fonts (SIL Open Font License 1.1).

© SEE MORE JESUS · wanttoseemore.com — shared under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0 (CC BY 4.0).